

가을밤 수놓을 클래식 향연

유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내일 문예회관

광주 유진교향악단(단장 한만섭) 제76회 정기연주회가 다음달 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1984년 창단한 전남 청소년 교향악단이 모태가 된 유진 교향악단은 지금까지 100여차례 크고 작은 연주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사해 왔다.

김연주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서곡으로 막을 열며 현재 경희대 교수로 재직중인 한경훈씨의 창작 교향곡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한 주제'가 선 보일 예정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타미츠의 '플루트 협주곡 G장조', 바흐의 '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푸치니의 '마농레스코' 중 '혼자 쓸쓸히', 오페레타 '박쥐' 중 '웃음의 아리아', 이수인 곡 '내 밤의 갈매기', 임흥순 곡 '강 건너 불이 오듯' 등이다.

현연자로는 플루트의 윤성호(태봉초 5년), 김소영(초당대 3년), 바이올린의 우화민(서석초 4년)·류유진(신안초 4년), 바리톤 김찬경, 소프라노 김선희·김윤선(초당대 3년) 등이 나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경희씨>



<김선희씨>

소설로 읽는 광주비엔날레

백은하씨 멀티미디어소설 '바람' 비엔날레 흠피 연재

'대학교 1학년 남녀 학생이 2006 광주비엔날레 웹진을 만나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세간의 주목을 꽤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렵게도 소설 속 이야기다. 소설가 백은하(38·사진)씨가 비엔날레 개막과 함께 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www.gb.or.kr)에 연재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소설 '바람 Baram'의 뼈대이기도 하다.

꽃샘·병태 통해 작품 설명

이번 제6회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백씨는 무명작가에서 인기작가로 떠올랐다. 지난 9월 비엔날레 개막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연재한 소설 '바람'이 네티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비엔날레 출품작가 못지 않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현재 17회분(총26회 연재예정)까지 실린 '바람'은 회당 평균 조회수가 500~600건에 달하는 인기 아이টে일이다. 2006 광주비엔날레 대상작인 송동호의 '버릴 것 없는'이나 마이클 주의 '보디 옵스케터스'보다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소설은 대학교 1학년인 주인공 꽃샘이와 병태가 올해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과 대화를 나눈 후 작품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내용을 웹진 '비엔날레닷컴'에 실는다. 소설의 1~7회까지는 인터넷

로 부분이며, 8회부터 26회까지는 19명의 참여 작가를 다루게 된다.

재미작가 박선경의 테이프 드로잉 작품 '엔타입 스페이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대만 작가 슈민 린의 뉴미디어 작업 '내공'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프랑스 작가 펠릭 오하니언의 '7분전'에 등장하는 화면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이 꽃샘이와 병태의 대화를 통해 하나씩 벗겨진다.

무엇보다 소설 '바람'의 인기요인은 글로벌 구성된 기존의 소설과 달리 사진이나 미술 작품, 음악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데 있다. 독자들은 글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과 음악을 동시에 감상하게 된다. 백씨는 인터넷인 '엘'의 노래를 선택해 배경음악으로 깔았다. 이들의 '몽환적' 음악이 소설과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미술·음악 함께 즐겨

백씨가 '비엔날레 작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재단으로부터 '월드북' 제작을 권유받으면서부터. 대학원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한 그는 웹도록 대신 평소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던 멀티미디어소설을 활용해 비엔날레를 홍보하자는 제안을 했다. 다행히 재단측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멀티



네티즌 입소문 유명세

미디어 소설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 소설에는 시공을 넘나들며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지는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했어요. 독자들이 소설을 통해 비엔날레를 더욱 친근하게 여기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백씨는 지난 1996년 일간스포츠 신춘대중문학상 소설 부문에 당선되면서 등단했으며, 단행본으로는 소설집 '무지개에는 왜 검은색이 없을까요'(2001·은행나무 펴냄)가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컴퓨터와 융합된 회화의 세계

정숙영 교수 서울서 작품전

디지털 회화(Digital Painting)를 개척하고 있는 정숙영(광주여자대학) 교수가 11월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디지털 회화·형상전이(Transfiguration)를 주제로 컴퓨터와 융합된 회화의 세계를 선보인다.

정 교수의 디지털 회화는 원화(드로잉)를 제작한 뒤 컴퓨터를 통해 원화를 변형·왜곡하는 과정을 거쳐 출력한 프린트를 최종 붓터치로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작품 'Face to Face'는 실존, 삶과 현실의 괴리를 고민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표정을 담고 있다. 바코드를 소재로 채택한 'Telecloning' 연작은 문명에 예속되는 인간



'Telecloning'

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전남대 미술교육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주미술협회 이사, 전남도 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匠人들의 일상 포착

사진작가 강경숙씨 작품전

사진작가 강경숙씨가 11월3일까지 전남 도청에서 전남무형문화재 사진 작품전을 갖는다.

강씨는 이번 전시에서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들의 작업 과정과 일상을 담은 작품 21점을 선보인다.

그가 영감을 담은 작가는 나주 소반장 김춘식, 참빗장 고희주, 광양공시장 김기, 곡성 돌살이 김집순, 소목장 설석철, 청자장 이용희, 옥장 장주원씨 등 장인 21명이다.

강씨는 1년 여 동안 이들의 작업실을 방문, 작품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셋골나미 기능보유자 노진남'

는 명인들의 표정을 필름에 수록했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명장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강씨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순수미술학)을 졸업했으며, 제3회 사진작가협회 사진문화상 신인상을 수상한 뒤 한국사진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일제시대 황민화 교육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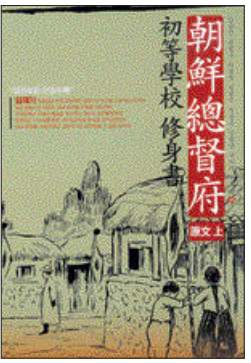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서 나와

일제시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황민화 시키기 위해 어떤 교육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서'(전 2권·제이앤씨 퍼블·사진) 원문을 한데 엮은 책이 발간됐다.

책은 일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했으며 어떤 교육을 통해 아동들의 인간·가치·국가관을 형성했는지, 어떻게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했는지 등을 조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본은 올해 안에 발간될 예정이다.

책을 펴낸 김순진·정승은·김용갑·서기재·박재홍(이상 전남대)·문철수(군산대)·이병담(서남대)·김현석(광주대) 교수 등 연구팀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 명치·대정조의 수신 교과서 연구', '조선총독부 수신서를 통해 본 '일본제국' 만들기 분석' 등의 저술을 진행해 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호로비츠' 피아니스트 김정원 이번엔 광주시민을 위하여~



5·18문화센터 내달 3일 독주회

영정화가 주연한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를 본 관객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호로비츠 처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꿈을 접은 주인공 공 지수는 피아노 교습소를 열고

한 '소년'을 만나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멋진 피아니스트가 돼 유학에서 돌아온 '소년'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지수는 눈물을 흘린다. 이 때 영화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연주한 이가 김정원이다.

젊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11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 5·18문화센터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김 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쇼팽의 '베토벤' '영웅 폴로네이즈' '환상 폴로네이즈'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폴로네이즈'와 리스트의 '소나타 B 단조'를 연주한다.

국문화자 김준성 전 전남대 교수와 드라마 '은실이' 등을 쓴 이금림씨의 아들인 김 씨는 14세 때 국립음대에 최연소 수석 입학한 후 엘레나 롬보로 슈테파노프 콩쿠르, 뷔켄도르프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화제를 모았다. 빈 심포니, 미사 마이스키 등과 협연한 바 있는 김 씨는 현재 M.I.K 멤버로도 활동중이다. 문의 02-2658-35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소년 일일기자 신문 제작 체험

청소년들이 일일기자가 돼 직접 신문제작에 나선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장남기)이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광주시 남구 방방동 송의중학교 실내체육관을 맞아 신문 제작을 돕는다. 신문 제작 후에는 자체 평가와 토론이 이

주제로 광주, 전남북 지역 28개 학교 224명의 중학생들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2주전인 17일 부터 온라인 강좌를 통해 기사 쓰기, 사실 및 칼럼 쓰기, 편집 등을 배웠다. 캠프에서는 편집회의와 취재, 기사 및 칼럼 작성, 편집 및 제작에 이르는 신문 제작의 전 과정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현직 기자가 편집국장 역을 맡아 신문 제작을 돕는다. 신문 제작 후에는 자체 평가와 토론이 이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정우부동산센터
(대표) 1671-0823, 011-607-2213
상업지 5층상가 오피스텔
화순 영남 전원주택부지 170평
화순읍 농가주택 187평
관리지역 대지 2100평(공영부지)
남구 송촌저소득주택 257평 매도
니주 도로 선산리 배밭 4700평
장흥유치 대천리(전·답) 임야
구례농부(관리지역) 3024평 매도
니주 남평 서산리(드림주원지)
개척교회 적합상가 75평
그린벨트 임야 14만 2000평 매도

한국공인중개사
(대표) 982-7100, (문의) 011-4325-1323
장성지역
공정부지, 불류참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
지면관계상 불건 올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점
대지 약 3000평
건물 1-철골조 2층 437평
건물 2-철골조 248평
매매가 12억(철충가능)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대표) 522-9422, (문의) 011-643-3210
동림2지구 및 하남로 대로변
동림2지구
입대
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

빛고을엔드공인중개사
(대표) 010-9455-2200, 074-674-1500
(양광동 드라마 세트장 옆)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투자의 최적기입니다
남구 송촌동 1중 주거지역 근매
남구 이장동 1중 주거지역 근매
남구 이장동 임야 3,000평 근매
남구 이장동 임야 2,800평 근매
남구 화성동 1중 주거지역 매매
남구 양촌동 1중 주거지역 근매
남구 양촌동 임야 4,000평 매매
남구 양촌동 임야 2,800평 근매
남구 양촌동 임야 3,400평 매매

신도시중개사
(대표) 061-833-8669
(양광동 드라마 세트장 옆)
심 고층
-여수 연육교 앞
아름다운 심
3500평, 별장, 전원주택지로
최적/당5만원
우주센타
고층, 맑은 계곡물 흐르는 곳
630평 펜션, 가든, 전원주택, 부
지토착적(그림같은)당33만원
우주센타
고층 바다와 정안방 300평 500평/
평당 3만원(전원주택최적)우주
발사, 조망전망은 곳
우주센타
고층 바다가 훤히게 앞으로
보이는 평, 농장, 과수원 최적
(임야 6천평) 평당5천원
섬
완전개인독점 6천평, 완도군
급일, 마을앞바다/ 전기 수도
가능 (전속가능) 당5만원(교환
도 가능함) 상가 아파트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011-635-7939, 010-3114-6103
(무량동 우등사재사거리 농림부지 2층)
건물
47억 빌딩
5천 호화주택
13억9천 빌딩 20x10m콘크
17억1천 빌딩 12만 빌딩부지
22억 상인지역 빌딩
65억 상인지역 빌딩
125억 빌딩 근매
09억 8천 근매
남구 양촌동 임야 4,000평 매매
남구 양촌동 임야 2,800평 근매
남구 양촌동 임야 3,400평 매매
남구 양촌동 임야 2,800평 근매
남구 양촌동 임야 3,400평 매매
남구 양촌동 임야 2,800평 근매
남구 양촌동 임야 3,400평 매매
남구 양촌동 임야 2,800평 근매
남구 양촌동 임야 3,400평 매매
남구 양촌동 임야 2,800평 근매
남구 양촌동 임야 3,400평 매매

한 일 지도 (주)
(대표) 529-1409, (문의) 010-2466-1409
(지산동 빌딩임)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책 판매중
★ 체크된 부분은 타사와 비교 환영
이번에 새로 나온 광주시 책은
1) 광주시 전지역 그린벨트 2차 해제 198곳 수록
2) 해제된곳 안에 전지역 계획상 수록
3) 해제된곳 안에 지역특성, 공원, 주차장 용지 수록
★ 남구 효천역세권 1, 2지구 비운도리 수록
★ 동구 용신동 택지개발 경계선 수록
★ 동구 월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내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벤치티문 부지 수록
★ 광주 무안간 고속국도 자세히 수록, 서광산·C수목
★ 광주 시내 전지역 APT 입구, 세대수, 평형도 수록
★ 하남2지구내 APT 배치도 수록
★ 수완지구 전지역 APT 배치도 수록
★ 남구 지석동 빛고을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신정동 골드프레임 APT 배치도 수록
★ 백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동구 지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옥동, 월전동, 평동공단 추가 수록
이외, 지적분할 및 신규 APT, 용도지역, 계획상 등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표기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광주·전남 전지역
실사확인도 지적도 부분별 맞춤제작 합니다.(빠다 속스기능)
<현재 판매중인 지번도 목록>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함평군, 영광군
한 일 지도 (주) <윤남주대표>
☎ 527-6310, (문의) 011-9433-6310